

잘못된 판단·업무 태만...행정 실패가 부른 막대한 혈세 낭비

광주 남구청사 리모델링 사업 368억 물어줄 판

캠코와 체결한 위탁 임대 개발 계약서 자의적 해석 담당자 상환 책임 알고도 상급자에 제대로 보고 안해 아웃렛 등 공실률 70% 달해 예상 수익 크게 못미쳐 최영호 전 구청장 감사원 결과 반발 법적 대응 검토

광주시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2011년 1월 체결한 '공유재산 관리 및 개발 위탁 계약'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며 368억원에 달하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의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24일 감사원이 남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결국 남구의 부당한 업무 과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서에 포함된 '남구 종합청사 리모델링 위탁개발사업 변경 개발사업계획서'에는 '위탁기간(22년) 내에 개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남구와 공사(캠코)가 협의해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개발 원리금 상환 후 사업종료'를 하도록 적시돼 있다.

특히 '개발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의 주체는 수익귀속의 주체인 남구'라는 조항이 붙어 있다. 이는 남구청사 임대를 통해 리

모델링 비용 301억원 규모의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남구청이 책임을 지고 캠코측에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 당시 남구 회계과 소속 실무 담당자는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급자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급자인 당시 청사건설추진단장과 부구청장 등은 청사(지하 6층-지상 9층 규모) 지하 1층-지상 4층의 임대권을 캠코측에 양도하면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남구 간부들은 실무 담당자의 말만 믿고 캠코가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위탁기간을 5년간 연장하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애초 남구와 캠코는 청사 임대율이 70~8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년 20억원(원금+이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2년 내에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이다. 그러나 분석과 달리 지하 1층-지상 4층에 들어선 '메가 아웃렛'(광주메가몰)과 '가구백화점'이 부진을 면치못하면서 공실률이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8년 까지 평균 공실률은 70%까지 치솟았다. 당연히 캠코의 임대수익도 사라졌다. 적자를 면치 못한 메가 아웃렛이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청사 1~2층에 '뽕처리 업체'까지 끌어들이면서, 소음은 물론 남구청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았다. 앞선 대로 뒤흔들고 투자금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캠코는 지난해 6월 남구에 리모델링 비용 등 투자손실액의 상환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에 남구는 캠코측이 투자 손실액을 감당해야 한다며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게 된다.

반면 캠코는 공실률 증가에 따른 임대 수익 저하 책임은 남구에 있다고 반박했다. 계약서에는 '위험부담의 주체가 남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22년)에 투자금을 회수 못하면 남구가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캠코측의 주장이 맞다고 봤다. 남구의 위험부담 범위에 임대료 하락, 공실률 증가 등에 따른 예상수익 미달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특히 당시 남구청장은 캠코측으로부터 위탁개발 사업 구조 및 위탁개발비 상환책임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텅 빈 남구청사 '메가아웃렛' 경제불황 등으로 대부분 비어 있는 광주 남구청사 2층 '메가아웃렛'을 시민들이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위탁개발비 상환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남구청장은 간부회의를 통해 남구가 위탁 개발비에 대해 상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계약 당시 남구청장이었던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최 전 구청장은 이날 광주

일보와의 통화에서 "캠코와 계약을 하기 전 당시 남구의회 의원들, 지역사회 대표들과 상의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경우라면 사업 추진을 하지 말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 의견에 따라 캠코가 위탁기간 내에 리모델링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5년 더 위탁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결과는 캠코의 입장만을 반영했으며, 계약

서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 문제"라며 "감사원 이의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변호사 자문 등 법적 검토를 거쳐 향후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 현안 실마리 찾을까

오늘 에너지밸리 협약...시·도지사, 나주시장 한자리 참석

그동안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이 모처럼 만에 한 자리에 모인다.

에너지 관련 회사들의 투자협약식 자리가 긴 하지만, 교착 상태에 있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나주 SRF 발전소, 군 공항 이전 등과 관련한 시·도 공동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4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25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 본사에서 한전·광주·전남·나주 공동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투자협약은 에너지 관련 기업 36개 기업과 투자협약각서(MOU) 체결하는 자리다. 이날 MOU를 통해 (주)대호 솔라 등 36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밸리에 993억원의 투자를 하게 된다.

이날 투자협약이 주목되는 이유는 최근 시·도 간 갈등 양상이 심각한 가운데 광주·전남·나주 공동 현안과 나주시장이 함께 해서다. 이들이 모처럼 만나는 자리에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비롯, 나주 SRF 발전소, 군 공항 이전 등 광주·전남 공동 현안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남도가 '2019 광주세계수업연수권대회' 입장권 구매를 위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광주시청에서 한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두 광역단체장과 강인규 나주시장이 함께 만나는 것은 올해 들어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5월, 이용섭 시장이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올해 정수분 50% 조성을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리자'고 양보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나주시가 '공동 운영을 추진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놓았고, 광주시가 이를 다시 거부하면서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고, 나주 SRF 가동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면서 광주시는 '쓰레기 대란'에 내몰리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완전 종전은 아직...전쟁 걱정없는 한반도 만들어야”

문대통령, 6·25 참전 유공자·가족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25 전쟁 참전 유공자 및 가족 182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참전유공자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6·25는 비통한 역사지만, 북한의 침략을 이겨냄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켰다"며 "여러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자유와 평

화를 지키고 애국의 참된 가치를 일깨운 모든 참전유공자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외국 참전유공자들을 언급하며 "6·25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이 함께 전쟁의 폭력에 맞선 정의로운 인류의 역사"라며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가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고 설명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 깃발 아래 함께한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며 "세계인에게 평화·번영을 선사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보답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의 의무"라며 "정부는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존경받도록 대통령 근조기와 영구용 태극기를 정중히 전해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분단의 상징’서 비핵화·평화 메시지 전할지 주목

트럼프 DMZ행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해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한미 정상이 80일 만에 다시 마주 앉게 됐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이어온 북미가 서서히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2017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미 정상이 친서교환을 통해 우호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대화 분위기가 다시금 무르익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연례 회담을 하는 것 역시 '축전자역(役)'에 힘을 보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지난 20~21일에는 시 주석을 평양으로 초청해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 '하노이 노딜' 후 남북 정상 간 공식적 소통이 없었던 만큼 중국,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더욱 정교하게 확인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 방문 성사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의미하는 상징적 장소인 DMZ에 방문한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아서다. 한반도 해빙 무드에서 두 차례나 김 위원장을 만나 비핵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밝혀 온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접경지에 선다면 이는 '분단의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가까운 무안공항, 가까운 여행, 가까워진 행복

무안공항 출발 ✈️ 여름 휴가를 부탁해

이색: fantastic

최고 22°C 시원 한 이색여행

몽골

몽골-테레지-트레킹 4일, 5일
1,099,000원~

메이르몽골여행 5일 5일, 5일, 13일, 17일 3일 5일
제약사항: 7월24일~8월23일
최종일 3일 4일/당일 4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루스키섬 4일, 5일
499,000원~

별수: 토요일 2일 4일 / 금요일 3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 선택경에 있음

휴양: Relaxation

바다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힐링 여행

보라카이

하나택 AVPF10
보라카이 4일, 5일 라카엘리조트
630,000원~

수요일 3일 4일 / 토요일 4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제주

하나택 AVPF02
제주 5일, 6일, 8일, 9일, 10일, 11일
490,000원~

수, 목요일 3일 5일 / 토, 일요일 4일 6일
제약사항: 3월 5일 (4월 5일~8월 31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나트랑

하나택 AVPF21
나트랑 4일, 5일
899,000원~

수요일 3일 4일 / 토요일 4일 5일
제약사항: 3월 5일, 15일 2일 4일
7월 20일, 30일 4일, 11월 3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관광: Sightseeing

볼거리 한가득 행복충전 여행

대만

하나택 AVPF01
대만-지우린-아루 4일
549,000원~

제약사항: 3월 4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상해

하나택 CCPF01
상해-황주-주자강 4일, 5일
329,000원~

수요일 3일 4일 / 토요일 4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미식: Tasting

나에게 선물하는 진정한 식도락여행

오사카

savepack JOPF01
오사카-고토-고베 4일
529,000원~

제약사항: 3월 4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0-, 선택경에 있음

마카오

하나택 CHPF01.C
마카오 4일
349,000원~

수, 목요일 2일 4일 / 토요일 3일 5일
#2인 이상 출생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0-, 선택경에 있음

다낭

savepack AVPF13
다낭-호이안 4일
499,000원~

매일 3일 4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코타키나발루

하나택 AMPF02
코타키나발루 5일, 6일, 8일, 9일
599,000원~

수요일 3일 5일 / 토요일 4일 6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 선택경에 있음

방콕/후아힌

하나택 AAPF13
방콕-후아힌 5일, 6일
685,000원~

수, 목요일 3일 5일 / 토, 일요일 4일 6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상해/장가계

하나택 CCPF02
상해-장가계 4일, 5일
999,000원~

수요일 3일 4일 / 토요일 4일 5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포함, 선택경에 있음

방콕/피아타

savepack APFF01
방콕-피아타 5일, 6일
399,000원~

수, 목요일 3일 5일 / 토, 일요일 4일 6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40-, 선택경에 있음

후쿠오카

savepack JKF10
후쿠오카-유후인-벵부 3일, 4일
299,000원~

수요일 2일 3일 / 금요일 3일 4일
(# 7월 24일부터 운영 예정)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00-, 선택경에 있음

도쿄

savepack JTFP01
도쿄 3일
599,000원~

제약사항: 2일 3일

한지여행 ▶가이드가사경에 \$300-, 선택경에 있음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교통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별도할증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지정 등록번호 제26004-1993-6 (총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존/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동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친선/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평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및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인건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한일 ■ 여행 유의 ■ 여행 자체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